

2022 수능 사회·문화 오답률 Top 5 (ebsi 기준)

Made by 파급 사문 팀장

1) 20번 (83.0%) - 답 ③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에서 t+100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0세~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1/2이고,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 단, t년과 t+100년의 부양 인구(15세~64세 인구)는 동일하다. 표는 갑국의 연도별 총부양비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년	t+100년
총부양비	100	150

* 노령화 지수 = (노인 인구 / 유소년 인구) × 100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부양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총부양비 =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 / 부양 인구] × 100

- ① t년 대비 t+100년에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 ② t년 대비 t+10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50% 감소하였다.
- ③ t+100년 노령화 지수는 t년 노령화 지수의 8배이다.
- ④ t+100년 노년 부양비는 t년 노년 부양비의 4배이다.
- ⑤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100년의 노인 인구는 동일하다.

<해설>

갑국에서 (1) t+100년에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 t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1/2이고, (3) t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입니다.

(1)을 2x로 두면, (2)는 4x, (3)은 x입니다. 가장 작은 비율에 해당하는 (3)을 x로 두면, (1)은 2x, (2)는 4x입니다. 전체 비율은 100%이므로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5x)%입니다. (100에서 (2)와 (3)을 뺀 값)

갑국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합니다. t년의 총부양비는 100이므로 t년에서 부양 인구와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는 같습니다. 따라서, x는 10입니다. [(100-5x)=5x]

따라서, t년 노인 인구 10명, 부양 인구 50명, 유소년 인구 40명.

t년과 t+100년의 부양 인구는 50명으로 같습니다. t+100년의 총부양비는 150이므로 t+100년에서 유소년 인구 + 노인 인구는 75명입니다. 유소년 인구를 a명으로 두면, 노인 인구는 (75-a)명입니다.

t+100년에 전체 인구 중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고, t+100년 전체 인구는 125명이므로 t+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25명입니다. 그러므로 t+100년의 노인 인구는 50명입니다.

따라서, t+100년 노인 인구 50명, 부양 인구 50명, 유소년 인구 25명.

2) 15번 (75.0%) - 답 ㉔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 수급자	45	㉑	60	60
(나) 수급자	㉒	19	19	2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6	10	4	6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임.

- ① ㉑은 65, ㉒은 23이다.
- ② 급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 ③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 ④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C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⑤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가장 높다.

<해설>

(가)는 공공부조 중 하나인 기초연금, (나)는 사회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가)와 (나) 중복 수급자에는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의 비율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지역 간 65세 이상 인구비를 구하면 됩니다.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3배이므로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300명입니다.

1) 가중평균을 활용하면, A 지역과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의 평균은 $9\%[\{(6 \times 1) + (10 \times 3)\} / 4]$ 입니다. 이는 갑국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과 3%p 차이가 납니다. C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의 평균은 4%이고, 갑국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은 6%이므로 두 비율의 차이는 2%p입니다. 따라서, C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A 지역과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의 합의 1.5배입니다.

2) C 지역 65세 이상 인구를 100k명이라고 두고 계산하면, $6 + 30 + 4k = 24 + 6k$ 이므로 k는 6입니다.

따라서, A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를 100명이라고 하면, B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300명이고, C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600명입니다.

㉑은 65, ㉒은 29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가) 수급자는 A 지역 45명, B 지역 195명, C 지역 360명. 합은 600명.

65세 이상 인구 중 (나) 수급자는 A 지역 29명, B 지역 57명, C 지역 114명. 합은 200명.

65세 이상 인구 중 (가)와 (나) 중복 수급자는 A 지역 6명, B 지역 30명, C 지역 24명. 합은 60명.

3) 17번 (74.0%) - 답 ①

17. A~C국에 나타난 문화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국은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보관하기 위해 조리한 음식을 뜨거운 물로 살균한 유리병에 넣은 병조림을 만들었다. 전쟁 중에 B국은 A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철제 통조림을 개발하였다. 한편 B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C국의 한 발명가가 철제 통조림 뚜껑을 안전하게 분리하는 뚜껑을 개발하였다. 훗날 C국의 기업이 통조림 뚜껑을 쉽게 열 수 있는 원터치 캔을 개발하고 A국과 B국 현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이후, 세 나라 모두 원터치 캔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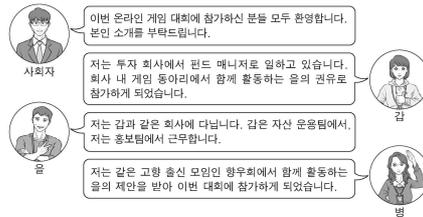
- ① A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② B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 ③ C국에서는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④ A국에서는 B, C국과 달리 내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 ⑤ A, B국에서는 C국과 달리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해설>

- ① C국의 기업이 개발한 원터치 캔을 A국에 판매하였으므로 A국에서는 직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원터치 캔은 A국이 아니라 C국에서 발명한 것.
- ② B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C국에서 간접 전파에 의한 문화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C국의 한 발명가가 B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것이랑 전파량은 제시문을 봤을 때 별 연관성이 없다.
- ④ A국에서는 병조림을 만들었으므로 내재적 요인인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났다. C국에서는 원터치 캔을 만들었으므로 이것 또한 내재적 요인인 발명에 의한 문화 변동이 나타난 것이다.
- ⑤ 자극 전파는 B국이 A국의 병조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철제 통조림을 개발한 것이다. 제시문 내용을 보면, A국에서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18번 (60.0%) - 답 ②

18. 그림에서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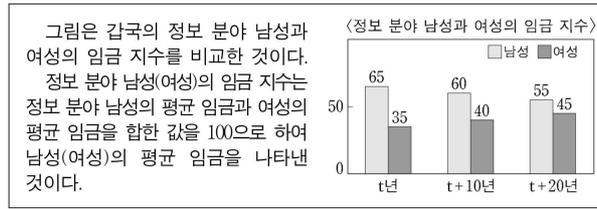
- ① 갑은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 모두에 속해 있다.
- ② 을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 ③ 병은 1차 집단과 비공식 조직 모두에 속해 있다.
- ④ 갑은 을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 ⑤ 을은 갑, 병과 달리 2차 집단에 속해 있다.

<해설>

- ① 갑이 공동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갑이 속한 이익 사회에는 투자 회사와 회사 내 게임 동아리가 있다.
- ② 을은 투자 회사 홍보팀이라는 공식 조직과 회사 내 게임 동아리라는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갑의 발언을 보면 을은 갑과 함께 회사 내 게임 동아리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병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 향우회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다.
- ④ 을은 갑과 함께 회사 내 게임 동아리라는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
- ⑤ 갑은 을과 함께 투자 회사라는 2차 집단에 속해 있다.

5) 7번 (58.0%) - 답 ② (ㄱ, ㄷ)

7.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t년, t+10년, t+20년 모두에서 정보 분야 남성의 평균 임금이 정보 분야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많다.
- ㄴ. t년 대비 t+10년에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와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 간 격차는 10% 감소하였다.
- ㄷ.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의 경우, t년 대비 t+10년의 증가율은 t+10년 대비 t+20년의 증가율보다 크다.
- ㄹ. t년 대비 t+20년에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 감소율과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 증가율 크기는 동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ㄱ. 정보 분야에서는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남성의 임금 지수가 더 높다. 이는 곧 t년, t+10년, t+20년 모두에서 정보 분야의 남성의 평균 임금이 정보 분야 여성의 평균 임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ㄴ.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와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 간 격차는 t년에 30이고, t+10년에 20이다. 30에서 20이 된 것은 10% 감소한 것이 아니다. 이는 $\{(30-20)/30\} \times 100\%$ 감소한 것이다.
- ㄷ.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의 경우, t년 대비 t+10년의 증가율은 $[(40-35)/35]$ 이고, t+10년 대비 t+20년의 증가율은 $[(45-40)/40]$ 이다. 전자는 1/7이고, 후자는 1/8이므로 전자가 더 크다.
- ㄹ. t년 대비 t+20년에 정보 분야 남성의 임금 지수 감소율 크기는 $|[(55-65)/65]|$ 이고, t년 대비 t+20년에 정보 분야 여성의 임금 지수 증가율 크기는 $|[(45-35)/35]|$ 이다. 전자는 10/65이고, 후자는 10/35이므로 둘은 동일하지 않다.

※ || 기호는 절댓값 기호로 사용한 것입니다.